

한전과 피션에너지, 정밀탐사 계약 체결



한전콘소시엄과 피션에너지가 16일 밴쿠버에서 워터베리 레이크 우라늄 정밀탐사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서명했다.(사진 = 이광호 기자)



워터베리 레이크 정밀탐사 계약 체결 후 관계자 및 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왼쪽부터 Ro n Hochstein(Danison Mines, CEO), Dev Randhawa(Fission Energy, CEO), 연아 마틴 (연방상원의원), 변준연(한전 부사장), 서덕모(밴쿠버총영사), 이재우(Gravis Energy, CEO), 정재완(한전 해외사업본부 부장)이다.(사진 = 최예린 기자)

운 좋은 예감!! 검색단어 제안 클/릭/↑

한국과 캐나다

A-link 컴퓨터
밴쿠버 최고의 컴퓨터 판매·수리 전문점 | 604-468-0006

미소드림한의원
604-931-4159

Reading Town
604-255-7060

저스틴 안(한창운) 법률 공증사

대농 밴쿠버 민박 학생민박
하루 15불, 캐나다 최초 학생민박, 다운타운 구역, 무료밥, 인터넷, 픽업
www.theminbak.com

캐나다 부동산의 모든 것
1등 부동산 신문, '부동산 밴쿠버' - 집값+시세+경제+뉴스+이민+유학
www.budongsanv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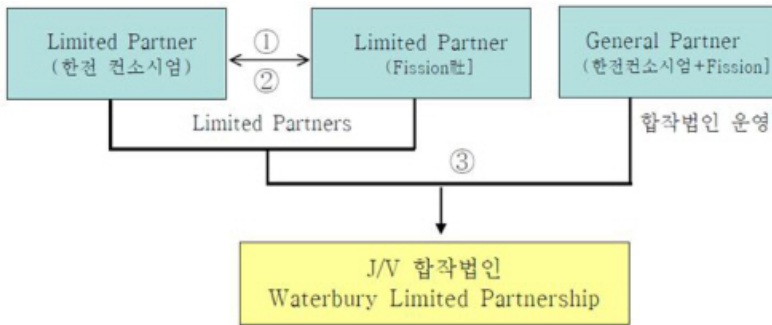
Canada Homestay
Homestay Company in Vancouver 캐나다 홈스테이 쉽게 찾기
canadahomestay.net

Google 광고

한국과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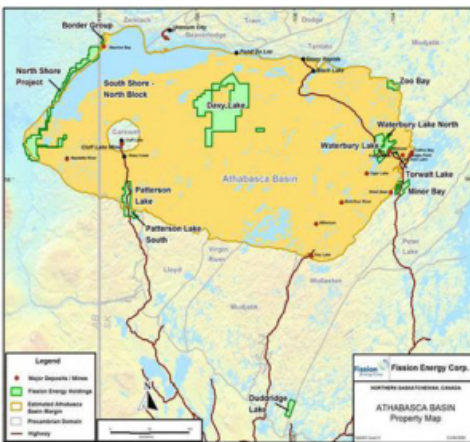
운 좋은 예감!! 검색단어 제안 클/릭/↑

277. 한전(한전 컨소시엄)과 피션에너지(피션에너지 컨소시엄)



※ 한전 컨소시엄 : 한전, 한수원, 원전연료, 한화, Gravis

J/V합작회사의 설립 구도.



다량의 우량 우라늄이 발견된 사스카추완주의 워터베리 레이크 지역.

캐나다에 묻혀 있는 우라늄 광산을 한국 기업이 개발해 본국의 에너지 자주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공사(KEPCO ; 사장 김쌍수)가 주체가 된 한전컨소시엄(KWULP ; Korea Waterbury Uranium Limited Partnership)은 16일 오전 밴쿠버에서 우라늄 탐사 전문업체 피션에너지(Fission Energy ; CEO Dev Randhawa)와 워터베리 레이크 우라늄 프로젝트 탐사 연장 계약에 서명했다.

지난 2008년 1월 피션에너지와 첫 계약을 맺고 시추한 사스카치완주 워터베리 레이크 인근 광구에서 고품위의 우라늄이 발견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KWULP는 100만 캐나다 달러를 피션에너지에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Private Placement) 형태로 투자하고 1400만 달러를 탐사비로 투자한 바 있다.

한전컨소시엄과 피션에너지는 2010년 8월 15일을 기해 각각 50대50의 합작회사(J/V합작법인 Waterbury Limited Partnership)를 설립하고 앞으로 3년 간 매년 1000만 달러씩 총 3000만 달러를 사용하여 1차 기초탐사에서 발견된 시추 범위를 확대시켜 대형 프로젝트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1차 탐사에서는 모두 97개 공의 시추 및 지물리 화학 탐사를 통해 이 중 20여 곳에서 1~15%의 고품위 우라늄이 발견됐으며 올해 초 최고 수준의 우라늄(22% U308)이 다량 발견됨으로써 성공적인 탐사 결과를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우라늄은 0.05% 품위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컨소시엄은 전체 우라늄 부존 예상지역 중 약 30%를 시추했기 때문에 우량 광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우라늄의 30%를 공급하는 아타바스카 광구 지역에 워터베리 프로젝트가 포함됐을 뿐 아니라 컨소시엄이 확보한 부지에서는 200m 깊이에서 우라늄이 발견돼 채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다른 탐사 광구 중에서 초우량급으로 분류되는 맥카서 리버(McArthur River) 광산에 우라늄이 묻혀 있는 깊이는 550m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를 대표해 합작법인 설립에 서명한 변준연 부사장은 "워터베리 우라늄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 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20% 수준인 본국의 에너지 자주율이 앞으로 50%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워터베리 우라늄 광산에 최고 4억~5억 달러(한화 약 5,700억 원) 투자까지도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전 해외사업본부 자원개발팀 정재완 부장도 "1차 탐사에서 워낙 양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추가 탐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와 인적자원이 풍부한 한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순간"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컨소시엄은 한전 20%, 한국수력원자력 15%, 한전원자력연료 15%, (주)한화 5%, 재캐나다 한인 기업인 그라비스 에너지(Gravis Energy, 대표 이재우)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워터베리 레이크 우라늄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www.gravisenergy.com / www.fission-energy.com)에서 구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최예린 • 이광호 기자

한국과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최예린 기자 musicbloom@joongang.ca

